

발리우드에서 '훼불 논쟁' 점화

인도 영화의 메카 발리우드(Bollywood)에서 훼불 논쟁이 일고 있다.

《Ecumenical News》지는 “인도 최고의 스타가 출연하고 최고의 배급사가 선보인 영화 ‘Villali Veeran’가 이번 훼불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발리우드의 스타 달립 라오(Dileep Rao)와 나미타 프라모드(Namitha Pramod)가 출연한 이 영화는 주인공 시다르탄(Sidharthan, 달립 라오 분)이 시공을 초월해 다채로운 삶을 경험하며 ‘고귀한 마음을 품은 상인’으로 성장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에서 인도 불교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다.

문제의 장면은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달립 라오 분)이 선정에 들고 있을 때, 네마리의 쥐가 끄는 호박 모양의 케라번의 문이 열리며 신데렐라 웃옷으로 성장한 천녀(나미타 프라모드 분)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때 선정에 깨어난 부처님은 어느새 범부의 모습으로 분하고, 여신과 ‘Cinderella chanthame’라는 노래를 부르며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Ecumenical News》지는 인도 불교계의 주장을 인용, “이 장면이 불교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도 불교계는 지난 6일 배급에 들어간 ‘Villali Veeran’의 상영 금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Villali Veeran’의 제작자 말



영화 ‘Villali Veeran’의 촬영에 앞서 나미타 프라모드(Namitha Pramod)·사진에서 ‘클랩 보드’를 들고 있다. 등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도 불교계의 반감을 산 영화의 한 장면. 인도 불교계는 선정에서 깨어나는 부처님의 모습이 세속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도 불교계 영화 ‘Villali Veeran’ 상영 금지 캠페인 전개 산카르 감독, “코믹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영화적 상상력”

은 수디시 산카르(Suddheesh Shankar) 감독은 《International Business Times》지와 인터뷰에서 “촬영 현장에서 불교에 대해 항상 진지했으며, 부처님을 모욕하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종교적 이해보다는 ‘영화적 상상’으로 평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카르 감독의 말은 인도 불교계의 분노를 반감하기에 역부족했다.

“문제의 장면이 앞서 부처님이 제자들

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내 성인이 아닌 속인으로 전환된다”고 지적한 인도 불교단체는 “이 장면에서 감독의 의도와 배우의 연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로서는 부처님의 정신을 희석하는 훼불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문제의 장면이 ‘영화적 상상력’으로 치부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셈이다.

이에 대해 ‘Villali Veeran’에서 주인공

시다르탄의 연인 역을 맡은 나미타 프라모드 씨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Villali Veeran’의 주인공 시다르탄이 영화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면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여의었다는 데에 인도 불교계가 주목해줄 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uddhist Art News》지는 “영화 ‘Villali Veeran’는 지난 6일 발리우드 최고의 영화 배급사인 ‘Ramya Movies’에 의해 상영되기 시작했다.”고 전하는 한편 “‘Buddhetan’이라는 처음 타이틀조차 버리고 제작을 마치고 상영에 들어간 영화 ‘Villali Veeran’가 인도 불교계의 ‘상영 금지 캠페인’에 맞서 어느 정도 흥행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시진핑 방문 맞춰 뉴델리 곳곳서 시위

인도 거주 티베트인 독립요구 시위 벌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인도를 방문하면서 인도에 사는 티베트인들이 뉴델리 시내 곳곳서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현지 언론은 9월 18일 오전(현지시간) “티베트 청년 한 명이 시 주석이 머문 타지 팰리스 호텔 주변 전봇대에 티베트기를 들고 올라가 ‘티베트에 자유를 달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회담이 열린 총리실 부근 도로에도 이날 십여명의 티베트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티베트 청년 회의” 소속 학생 25명은 전날 뉴델리의 중국 대사관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 통제선을 넘어 10여명이 체포됐다.

텐징 지그메 티베트 청년 회의 대표는 “티베트의 상황은 2009년 이후 130여명이 분신할 정도로 악화했다”며 “시 주석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인도방문에서 18일 20조원 상당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환영의 뜻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인도를 방문한 기간 동안 인도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을 밝히면서도 양국의 오랜 과제인 국경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강조했다.

한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 방문을 환영했다. 달라이라마는 18일 뭄바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의 접근 방식은 전임 지도자인 후진타오보다 더 현실적이고 너그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3일간 인도를 방문하는 데 맞춰 이같이 말하며 “그의 현실적이고 너그러움 사고방식은 인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아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싱가포르 제3회 국제불교영화제 성료

9월 20~27일 개최...대만·네팔 등 11개국서 출품

제3회 THIS 국제불교영화제가 9월 20~27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나의 만다라(대만)’, ‘삼법인(태국)’, ‘108마리 야크(네팔)’ 등 11개국에서 출품된 16개 작품이 상연됐다.

이번 영화제를 위해 100편에 가까운 영화들이 심사대상에 올라 최종 16편이 결정됐다. 장편 극영화,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은 마음 챙김과 자비라는 보편적 주제를 통해 불교의 역사·문화·사회적 측면을 조명했다.

개막작인 ‘관세음보살(중국)’은 불교가 시련을 겪은 당 나라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자비, 연민 그리고 진실성을 보여줬다.

다큐멘터리 ‘숨쉬기 위한 방(미국)’은 한 샌프란시스코 중학교의 소란스러운 학생들이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냈으며, 행복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을 기록한 ‘행복(미국)’도 선보였다.

이밖에 자아정체성, 정의, 죽음 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철학적 여정을 담은 ‘테세우스의 배(인도)’ 등과 함께 ‘우주소년 아담’으로 널리 알려진 오사무 테즈카



대만 출품작인 ‘나의 만다라’의 한 장면.

가 자신의 만화를 토대로 제작한 만화영화 ‘뫼타2’ 등이 호응을 얻었다.

THIS는 “이렇게 나는 보았다(Thus Have I Seen)”을 의미하는 단어로 싱가포르의 전문직 젊은 불자들의 모임 ‘행동하는 다르마(Dharma In Action)’에 의해 시작됐다.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이 영화제의 목적은 불교의 가르침과 가치관으로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1·2회 영화제를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불교에 접근하려는 불자들이 비불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아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맨하탄 사찰, 채식으로 주민들 관심 집중

그레이트 불교사원 주민들에게 공양 올려

일요일 아침 채식 뷔페에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Huff Post》지는 “브로드웨이의 한 사원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선보이는 채식 식단에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제의 사원은 브로드웨이 동쪽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불교계의 ‘그레이트 불교사원(Grace Buddhist temple)’이다.

“그레이트 불교사원의 일요일 아침은 조금은 부산한 느낌”이라고 전한 《Huff Post》지는 “은은한 향 내음과 동경 소리와 주민들의 경쾌한 발걸음이 사원을 가득 메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트 불교사원에는 정토승 주계를 받은 10명의 비구니 스님이 상주하고 있다. 일요일 아침 채식 뷔페는 이들 비구니

스님들의 울력의 결과물이다. 호박, 오이, 멜론 등을 식재료로 마련한 찬에서부터 국수, 두부, 국 등까지 비구니 스님들이 손수 요리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식기 일체는 놓는 일 역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은 우리에게 수행이자 포교 방편”이라는 진기(Jingyi·선원장) 스님은 “이 공양으로 주민들이 건강해지고, 사원과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스님들 모두 뿌듯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기 스님이 요리를 맡고 있는 음식은 멜론을 식재료로 한 찬과 두부 요리이다. 진기 스님이 따르면, 멜론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입증된 과일이고, 두부는 영양 만점의 식재료이다. 두



일요일 아침 채식 뷔페에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레이트 불교사원 선원장 진기 스님(사진 오른쪽)은 “주민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은 우리에게 수행이자 포교 방편”이라고 말한다.



부의 원료인 콩은 사원 뒤뜰에서 직접 경작하고 있다.

《Huff Post》지는 “미국 사회에서 육식에 대한 저항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레이트 불교사원이 지역 주민

에게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채식 식단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며 “이는 불살생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자비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나만의 완성세계 기iban

나만의 완성세계 기iban

기iban

기iban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